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4월 ~ 5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홍콩, AI, 수입, 금지, 가금류, 조류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홍콩, AI, 수입, 금지, 가금류, 조류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홍콩, 영국 노퍽 및 한국 제주도의 가금류 수입 중단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홍콩, 영국 노퍽 및 한국 제주도의 가금류 수입 중단 발표

6월 7일, 홍콩 식품안전청(CFS)이 영국 노퍽과 한국 제주도의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영국 노퍽 남부 지역과 한국 제주도를 H5N8형 AI 발생지역으로 발표함에 따라 AI 확산 방지 및 홍콩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H5N8형 바이러스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일종으로, 닭, 오리, 철새에서 증세를 보이며 지금까지 인체 감염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CFS의 발표에 따르면, 홍콩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영국으로부터 약 5,000톤의 냉장 및 냉동 가금류와 약 36만 개의 조류 알을 수입했고, 한국으로부터 약 27톤의 냉장 가금류와 약 10만 개의 조류 알을 수입했다. 하지만 同 수입 중단 조치에 따라, 홍콩으로 가금류 제품을 수출했던 영국 및 한국 기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월 8일, 제주, 전북 군산, 익산, 경기 파주, 부산 기장, 경남 양산, 울산 등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H5N8형이 확진됐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와 달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바이러스 증식률이 높다. 고병원성 H5N8형 확진 지역이 증가하고 AI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대상 국가의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AI 발생 및 확산 장기화는 해외 소비자의 한국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신뢰도 및 선호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AI 사전 예방 및 조기 진압 시스템 구축을 통해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對홍콩 가금류 제품의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AI를 종식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종 살처분 후 3개월간 AI 추가 발생이 없고,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어야 한다. 개별 기업은 AI 진압 현황을 관찰하며 향후 수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철새 이동 시기인 가을,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AI가 발생한 사실은 AI 예방 및 조기 진압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살처분 방식뿐만 아니라, AI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처할 필요가 있다. 농가 밀집도가 높은 한국 농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개체에 대한 검역 및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AI가 소규모 농가에서 주로 발생했음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농가에게까지 방역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1. 香港禁止從英國南諾福克區及韓國濟州入口禽肉及禽類產品, 香港特別行政區政府新聞公報, 2017.6.7.
2. H5N8 Strikes Again in South Korea, Europe, The Poultry Site, 2017.6.8.